

유명인 무료강연으로 유도하는 보험상품 판매전략에 유의하세요!



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SNS 등에서 '상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2 계좌에 들어온 주식의 상호가 알고 있는 상호와 똑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3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해 주식을 고가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4 주식 사기가 의심되면 신속하게 금감원 1332, 경찰청 112로 신고하세요!

금감원 이야기

2025 JUL+Aug vol.144



Classic+Hip

클래식힙

클래식은 '늘' 좋아서
클래식이라면서요?

Contents

SPECIAL THEME

04

Survey

클래식힙,
그게 뭐길래?

08

Report

‘뮤지엄힙’ 열풍!
MZ세대가 예술 전시에 열광하는 이유는?

12

Inside

귀족 예술이라고요?
발레의 격변

14

Code

‘국립’이 붙으면 된다!
가성비 넘치는 K-클래식 즐기기

16

Interview

전통문화를 내 방 곳곳에!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
공예기획팀 ‘K-Heritage’

FSS GUIDE

20

머니 체크

여름을 합리적으로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24

금융·경제트렌드

매일 바뀌는 트럼프 관세 전략,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8

알쓸금잡

서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저축은행이 달라진다!

30

Q&A 특특

해외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외국환거래 유의 사항 살펴보기

32

에코 여행

단양 어디까지 가봤니?
단양의 핫플을 찾아서

36

체크! 금융생활정보

숨어 있는 보험금,
이렇게 찾으세요

FSS LIVE

38

FSS Together

우정 400%!
파란만장 문경 여행기

44

FSS Talk Talk

나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8

우리는 호적메이트

버터 듬뿍, 사랑도 듬뿍!
겉은 바삭, 안은 부드러운
구움 과자 만들기

52

나를 가꾸는 시간

햇살과 낭만이 넘실거렸던
나만의 유화 그리기 클래스

56

FSS 뉴스

58

뻘하지 않은 퀴즈

PART

1



SPECIAL THEME

04

Survey

클래식힙,
그게 뭐길래?

14

Code

‘국립’이 붙으면 된다!
가성비 넘치는 K-클래식 즐기기

08

Report

‘뮤지엄힙’ 열풍!
MZ세대가 예술 전시에 열광하는 이유는?

16

Interview

전통문화를 내 방 곳곳에!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
공예기획팀 ‘K-Heritage’

12

Inside

귀족 예술이라고요?
발레의 격변

웹진 FSSZINE



발행일 2025년 8월 25일(통권 144호) 발행처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획·편집디자인 ㈜이팝 02-514-7567 인쇄 디자인은 화신 02-2275-7719 본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힙,

그게 뭐길래?

CLASSIC+HIP

‘클래식’이라 하면 고루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다. 클래식은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덜 역동적이고, 공연이 끝날 때 박수를 쳐야 하는 규칙도 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예술인지 헷갈리는 현대미술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클래식이 ‘힙’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클래식힙(Classic+Hip)’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과연 무엇이 클래식을 다시 주목받게 만든 걸까?

바뀌지 않는 가치, 클래식

클래식(Classic)은 ‘고전’을 뜻하는 라틴어 클라시스(Classis)에서 유래했다. 클라시스는 로마의 집단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고전이라는 뜻부터 알아보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전은 첫 번째,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온, 두 번째,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클래식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OO’를 뜻하는 것 같다. 여기서 OO에는 아무것이나 들어갈 수 있다.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나 하물며 ‘클래식한 주방기기’라고 붙여도 말이 된다. 그렇다면 꾸준히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가 클래식 안에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 풍부한 리듬이 돋보이는 바이올린이나 보컬 하나에도 수많은 감상을 일으키는 미술 작품 등. 하물며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도 클래식 오페라나 연극 등이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클래식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젊고 힙하다! 디지털 콘텐츠와의 만남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클래식 열풍이 불고 있다. 한 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3월 20대가 가장 많이 찾은 세대별 핫플레이스 상위 10곳 중 4곳이 미술관과 공연장이고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는 전년 대비 161.8% 검색량이 증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검색량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4년 기준 국립현대미술관은 60~70%가 20대 관광객이다. 틱톡에서

는 #classictok이라는 해시태그가 부상하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이 아이돌급 인기를 구가하고, 미술관은 인스타그램과 맞닿으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젊은 세대가 이토록 클래식에 열광하기에, 클래식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현재는 고루하다는 인식이 온데간데없어졌다.

나를 드러내는 방식

사람들은 SNS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빠르고 자극적인 슷폼이 아닌 나만의 감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감성을 지닌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에 조용한 공간에서 나에 대해 집중할 수 있고, 보고 나면 어렵더라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클래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또 한편으로는 남과 다른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클래식이 쓰이기도 한다. 트렌드와 유행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면서 이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대체로 보지 않는’ 클래식을 향유하며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클래식’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저렇듯,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던 클래식이 더욱 대중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오래전부터 대중과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예술인들의 피와 땀이 드디어 클래식힙이라는 트렌드를 만나 날개를 다는 중이니까. 클래식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계승해 꾸준히 내려오는 장르인 만큼,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이제는 클래식이 힙하다!

클래식, 얼마나 즐기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잔잔한 위로를 주기도,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기도 하는 클래식. 조용히 혼자 음미할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전시를 둘러보거나 피아노 선율에 귀 기울이거나, 무용 공연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빠질 수도 있다. 요즘은 이 클래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데, 이번에는 FSS인들이 즐기는 다채로운 클래식 라이프를 소개한다.

Q3. 클래식 정보는 주로 어디서 수집하시나요? (2개 선택)



47.7%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9.2%

지인을 통해

26.2%

클래식 관련 영상 콘텐츠(TV, 유튜브 등)

37%

포털 사이트 검색(네이버, 구글 등)

10%

책이나 신문을 통해

Q1. 어떤 클래식 문화를 즐기시나요?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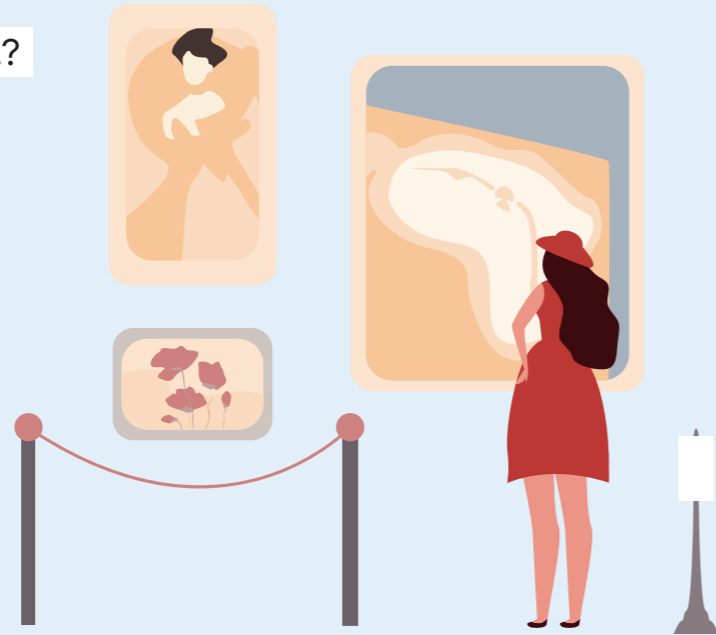
미술 전시

30.8%

음악 공연(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회 등)

6.2%

오페라 공연



Q4. 클래식 문화를 얼마나 자주 즐기시나요?

40%

1~3개월 기준 1~2회

33.8%

6개월 기준 1~2회

24.6%

1년 기준 1~2회

1.6%

주 1회



Q2. 클래식 문화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중복응답)

84.6%

힐링하기 위해서

32.3%

교양을 쌓기 위해서

29.2%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20%

나만의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



Q5. 클래식 문화를 즐길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52.3%

비싼 가격



27.7%

배경 지식의 부재

20%

공연 or 전시 정보가 적음



‘뮤지엄힙’ 열풍! MZ세대가 예술 전시에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뮤지엄은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예술 핫스팟’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무려 55만 명이 몰린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의 메가 히트, 뮤지엄 문화상품인 ‘뫼즈’의 폭발적 인기, 유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휴식하는 ‘유물멍’ 트렌드까지, 이제 뮤지엄은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가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미술관은 지금 ‘최고의 예술 놀이터’...

<론 뮤익> 메가 히트 속 함의(含意)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관과 박물관은 중장년층과 예술 애호가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풍경이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람객으로 붐비면서, 전시는 순수 예술을 넘어 대중문화계의 가장 강력한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약 418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세계 6위, 아시아 1위 박물관으로 우뚝 선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말이면 지하철역부터 입장객 행렬이 이어지고, 관람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용산경찰서가 나서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전시 예술 인기의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감성적 소비에 적극적인 MZ세대가 있다. 전시는 더 이상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전시장을 ‘경험’하고, ‘기록’하며, ‘공유’한다. 관람 자체가 하나의 문화 소비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MZ세대가 전시 문화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이다. 호주 출신 세계적 조각가의 이 전시회를 94일간 무려 53만 명이 찾았고,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단일 전시 최대 관람 기록이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몰렸으며, 마지막 날엔 100m가 넘는 입장 대기 줄이 생길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2030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70%를 차지하며 전시 붐을 주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론 뮤익>

사진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의 인기는 SNS에서도 폭발적이었다. 사진을 촬영할 때 형태가 명확히 드러나는 '포토제닉'한 조각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콘텐츠였다. 여기에 5천 원이라는 부담 없는 입장료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론 뮤익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이 전시는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었던 게 핵심입니다. 무표정한 인물 조각은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게 만들어요. 작가가 모든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를 관객에게 열어둔 작품이죠.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향유 하고자 하는 MZ세대에게 특히 어필했다고 봅니다.”

-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론 뮤익> 외에도 올해 상반기는 메가 히트 전시가 잇따랐다. 클림트에서 에곤 실레까지 빈 분리파 화가의 걸작으로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 <비엔나 1900> 전시는 하루 인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25만 명이 몰렸고, 호암미술관 <겸재 정선> 전시도 15만 명이 다녀갔다.

‘뭇즈’와 ‘유물멍’... 전시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

MZ세대는 전시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혁신하고 있다. 뮤지엄 굿즈(Museum+Goods), 이른바 ‘뭇즈’(뮤지엄 문화상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뭇즈 판매는 그 열기를 입증한다. 반가사유상 인형, 단청 키보드 등 기존 인기 상품은 물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까치호랑이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관련 뭇즈는 품절 사태까지 이어졌다. 상반기 뭇즈 매출은 1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나 증가했다.

또 하나 주목할 트렌드는 ‘유물멍’이다. 유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적인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관람 형태를 의미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흐름에 발맞춰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도서 ‘유물멍: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까지 발간했다. 디지털 정보 과잉 시대, 복잡한 감각을 쉬게 할 ‘정서적 안식처’로서 뮤지엄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감상과 명상이 결합된 이 독특한 이용 방식은, MZ세대가 예술과 맺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비엔나 1900>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렉처’... 관객 중심으로 진화하는 전시

MZ세대가 전시의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전시 콘텐츠 구성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기획과 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그 대표 사례가 지난 3월 DDP에서 열린 <미나 페르호넨: 디자인 여정>이다. 이 전시는 기존의 단순한 오디오 설명 도슨트를 넘어, 해설과 강연을 결합한 ‘스페셜 렉처 투어’를 시도했다. 회당 50명 내외로 구성된 이 투어는 전시장을 90분간 함께 돌며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했고,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를 깊이 있게 즐기고 싶은 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공연 예술’의 경우는 객석에서 수동적으로 감상해야 한다면, ‘전시 예술’은 보고 싶은 작품을 길게 보는 등 상대적으로 감상 시간의 압박도 덜 받죠. 감상의 자율성과 몰입도를 자신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특히 MZ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 이음해시태그 부사장 배지운(미나페르호넨 전시 총괄 기획자)

뮤지엄힙(Museumhip), 전시를 재정의하다

‘힙한 뮤지엄’을 뜻하는 ‘뮤지엄힙’이라는 명명이 매우 적절할 만큼,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인 문화 용광로는 바로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이다. 전시 콘텐츠는 점점 더 대중 친화적이고, 다양한 취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작품 해설, 연계 프로그램, 굿즈 개발 등 부가 콘텐츠도 강화되고 있으며, 큐레이션 중심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과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뮤지엄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시 기획과 관람 패러다임 자체를 재정의하는 문화적 흐름이다. 이는 한국 예술 생태계가 맞이할 다음 시대의 중요한 전조이자, 혁신의 신호탄이다.



MUSEUMHIP

귀족 예술이라고요?

발레의 복변

그동안 발레는 소수를 위한 비싸고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발레가 그 정도로 비싼 예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가?

심지어 요즘에는 <해설이 있는 발레>나 <스테이지 파이터> 등 대중친화적인 콘텐츠로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여럿 시도 중이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발레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탄생 자체가 고급

발레는 오랫동안 귀족 예술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는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 이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발레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레는 본래 유럽의 궁정과 귀족사회에서 향유하던 사교 무용이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로, 16세기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이탈리아 출신 왕비와 결혼하며 프랑스 왕궁에 전파되었다.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7세기 루이 14세가 왕실음악무용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부터라고 하니,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을 위한 예술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의 첫 발레단은 1946년 조직된 '서울 발레단'이다. 그 이후로 1962년에 지금은 발레리나 강수진이 예술감독을 지내고 있는 국립발레단이, 최초의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설되면서 그 역사를 잇고 있다. 비록 서울 발레단은 6.25 전쟁으로 인해 지속하지 못했지만,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은 아직도 결출한 무용수를 배출하고, 예술의전당 및 여러 극장에서 모든 이들이 알만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지젤' 등을 공연하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속도도 쾰, 실력도 쾰, Korea Ballet

우리나라 발레의 독특한 점은,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유명한 무용수를 여럿 배출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레리나의 발'로 유명한 강수진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된 박세은,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발레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한 김기민, 뒤이어 최근에는 전민철이 입단하며 종횡무진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덕분에 한국에서도 발레가 부흥했을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발레는 원래부터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 발레단은 '해설이 있는 발레'를 선보이고 있다. 관계자가 나와 공연의 내용을 설명하고, 집중할 포인트를 알려준다.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발레도 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발레 춘향>이 그것이며, 클래식한 발레 외에 <돈키호테>, <인어공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무용수의 극적인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도 자주 구성하고 있다. 발레 무용수

들이 나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엠넷에서 작년에 방영한 <스테이지 파이터>는 최초로 발레 무용수들을 섭외했고, 이곳에 출연한 무용수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중 친화적인 예술로, 한 발짝 더!

이처럼 아이돌급의 인기를 자랑하는 무용수들이 있기도 하고, 발레단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기에, 귀족예술이라고 여겨져 왔던 발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전보다 많은 관객이 발레 공연을 관람하는 것.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총 티켓 판매액은 60억 원 이상이며, 이는 최근 5년간 동 기간 중 최고 기록이다. 이를 증언하듯 박세은 무용수는 최근 예술의전당에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5>를 위해 한국에 내한했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10명 이상 참여라는 전례 없는 스케일을 자랑했고, 김기민과 전민철 무용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발레가 마니아들만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올해 여름은 아주 무더울 전망이라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더위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발레를 한 번도 관람한 적 없다면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설 발레단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발레단의 공연을 감상해 보자. 뜻밖의 여름 힐링이 될지도 모른다.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5
시진 출처: 예술의전당

BALLET GALA OF ETOILES IN PARIS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5 7.30-8.1
WED/THU/FRI 19:30
OPERA THEATER, SEOUL ARTS CENTER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이 붙으면 된다! 가성비 넘치는 K-클래식 즐기기

앞에 국립이 붙었다는 뜻은,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된다. 내 세금을 먹고 사는 데만 쓸 수는 없는 법.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앞에 ‘국립’이 붙은 예술단에서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본다.



사진 출처: 국립오페라단 홈페이지

마술피리, 모두 알고 계시죠? 국립오페라단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아아아”라고 부르는 노래를 들어봤다면, 오페라를 한 번 본 것이다.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를 국립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다른 곳보다도 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극단이다. 3달 전부터 3주간 조기 예약하면 30% 할인 혜택을 주며 시야방해석은 그레이존(Grey Zone)이라는 이름으로 50% 할인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해당 지역 관객이라면 20%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종종 두 가지 공연을 관람하면 30%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선보일 때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챙겨볼 것. 본래 가격도 극장 규모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사진 출처: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무용수가 점프할 때마다, 심장도 점프!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의 공연은 한 공연 당 30~40%에 가까운 혜택을 받으면서 관람할 수 있다. 우선 약 두 달 전까지 조기 예약하면 40%가 할인된다. 2024~2025년 공연 유료티켓을 소지했다면 문화릴레이 할인으로 10%, 2매를 받을 수 있으며,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등 무용 및 음악과 관련 있는 국립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을 경우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는 30%,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면 30%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의 혜택은 공연마다 달라지니, 원하는 공연이 있다면 할인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성비 넘치게 즐겨 보자. 이쯤이면 정가로 지불하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사진 출처: 국립국악관현악단 홈페이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 봐!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렵게 느껴졌던 우리의 소리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국립악단이다. 그해 공연 유료 관람자나 그해 띠(올해는 뱀띠), 3매 이상 구매자 할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위치한 중구와 근처의 용산, 동대문 소재 거주민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립발레단과 같이 문화 릴레이 할인 20%를 지원하며, 국립극장 무료회원은 무려 1인당 4매까지 20% 할인을 받아 예매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도 30% 할인이 들어가니 그 나이 또래의 자녀와 함께 국악을 감상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 외국인 관람객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친구와 함께 즐기기도 제격. 신명나는 우리의 국악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즐겨 보자.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어렵지만 재미있는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곳은 할인보다는 무료입장을 살펴보면 된다. 휴가를 쓰기 딱 좋은 수요일과 주말의 낭만을 느끼기 좋은 토요일 야간 개장 시간(18:00~21:00)에는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국군지구병원의 부지를 포함해 지은 기관인 만큼, 유공자와 유족들의 혜택도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만 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사진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핫해도 너무 핫한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더욱 귀하다. 특별 전시도 성인 기준 5천 원으로 저렴하며, 어린이박물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만 한다면 상시 무료라 가족끼리 즐기기도 제격이다. 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동반 1인, 관련 유족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역시 국립박물관인 만큼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하면 3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볼 수도 있고, 전시마다 당일에 발권할 경우 성인 기준 2천 원씩 할인을 해줄 때가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살펴보자.

전통문화를 내 방 곳곳에!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 공예기획팀 'K-Heritage'



‘전통문화? 너무 옛날이야기 아니야? 우리 할머니 집에도 자개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내 방, 내 업무 데스크 위에서도 조선시대의 기품과 기상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이 스며들어 더욱 힙한 ‘K-Heritage’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① 실제로 젊은 세대를 사이에서 ‘클래식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등 옛날 문화·전통문화가 힙하다는 인식이 생긴 듯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__ 우선 한류를 빼놓을 수 없죠. 한류가 주목받으면서 국가 인지도가 상승하니, 이런저런 미디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대세인 것처럼요. 젊은 층이 그 음악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 관람을 즐기면서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 외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굿즈하면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예뻐서 사보니까 실용성도 좋고, 그게 SNS와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② 안녕하세요, 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___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선생님의 기술과 전통문화 IP를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 공예기획팀 우혜정 팀장입니다.

③ ‘K-Heritage’를 통해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론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 K-Heritage는 사실 20년이 넘는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나, 출장을 가는 내국인들이 한국을 소개하기 좋은 전통 상품을 만들었어요. 명함집이나 넥타이 등 단순하고 실용적인 상품이었죠. 선물하기 편하도록 각이 져 있는 케이스에 넣어 나가는 게 당연했고요. 그러던 와중 케이팝이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희도 새로이 단장했어요. 양반이 쓰던 것을 상품화하기도 하고, 조선 왕실의 조명을 기반에 둔 DIY 상품을 내서 소위 ‘대박’을 치기도 했죠.

지금은 소비자 자체가 많아졌어요. 대중성이 생겼을까요(웃음).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기념품이나 선물 등으로 단체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전통문화 상품이 힙하다는 인식이 생겨서 2030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④ 젊은 세대가 특히 좋아하는 상품도 소개해 주세요.

___ 보통 특이한 디자인을 많이 사시고, ‘이거다’ 싶으면 가격을 고민하지 않는 듯해요. 보통 대한제국 시기의 상품을 선호하고요. 서양의 분위기와 한국의 분위기가 오묘하게 결합해 있어 더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얏꽃 오일 램프’ 인기가 놀라웠는데, 고종 황제가 석조전에서 지내실 당시 썼던 등을 상품화한 거예요. 파라벤 오일도 써야 하고, 불도 직접 켜야 하는 전통식이라 불편했을 텐데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쇼핑몰이 마비될 정도였죠.





① 전통문화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 많이 해요. 전통문화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여러 곳에서 전통문화를 토대로 상품을 제작하는데, 이 작업의 중요성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단청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만든다고 치면, 많고 많은 색 중 진짜 조선시대 단청의 색은 무엇인지, 이 구성이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업체가 외국으로 넘어갔는데,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데이터로 전통문화 상품을 만드는 것만 못합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를 더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품'이니 만큼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기술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공예품을 한 뼘 한 뼘 손으로 만드시고 매듭도 며칠씩 걸려서 지으세요. 물론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지만 그 나머지의 것은 현대의 디자인 감각과 맞게,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기술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이어 나가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① SNS도 정말 친근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개인 PR의 시대잖아요. 상품을 사면 SNS에 올리고 입소문 이전에 SNS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 정보를 이곳에서 얻는 게 당연해진 시대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또 전통문화 전수자 선생님들의 작업을 소개하거나, 전통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가볍게 소개하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가 쉽고 빠르면서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담는 건 당연하고요. 다행히 요즘은 전통문화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콘텐츠라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통 그대로 갖을 만드는 과정이나 요즘 시대에 보기도문 말총 만드는 작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① 요즘 전통문화 상품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풀어나갈 게 정말 많은 산업이에요. 그만큼 발전할 것도 많고요. 예를 들면 전통문화는 결국 전승 기술처럼 전통 공예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걸 수작업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소비자가 만나봐야 하고, 그만큼 발주도 물량 확보도 용이해져야 하니까요.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매듭이 정말 핫했는데, 사실 진짜 그런 식의 매듭을 짜려면 말도 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헤리티지까지 잃지 않으려면 산업적 고민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 고민이 곧 이 굿즈 산업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려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속적인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통문화 IP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처럼 공공기관과 함께 공모전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 드려요. 실제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판매하시면서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PART
2



FSS GUIDE

20
머니 체크
여름을 합리적으로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30
Q&A 특특
해외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외국환거래 유의 사항 살펴보기

24
금융·경제트렌드
매일 바뀌는 트럼프 관세 전략,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32
에코 여행
단양 어디까지 가봤니? 단양의 핫플을 찾아서

28
알쓸금잡
서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저축은행이 달라진다!

36
체크! 금융생활정보
숨어 있는 보험금, 이렇게 찾으세요

HELLO SUMMER

여름을 합리적으로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여름은 휴가의 계절. 마음 같아선 지구 반대편으로 훌쩍 떠나고 싶지만, 긴 휴가를 내기 쉽지 않고 치솟은 항공권과 물가 앞에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엔 국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익숙한 도시를 잠시 벗어나 맑은 통하지만 전혀 다른 풍경 속에서 여유를 즐겨보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행 할인 쿠폰과 카드사 혜택까지 활용하면 알차고 합리적인 여행도 가능하다. 울여름 휴가는 가까운 곳에서 아주 특별하게 즐겨보자!



멋도 챙기고, 돈도 챙기는 여행!

여행은 떠날 때부터 돈과의 전쟁이다. 처음엔 몇 천 원, 몇 만 원씩 쓰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0'의 자릿수가 달라져 있는 마법 같은 경험,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해 보자. 절약도 하고, 덤으로 잘 몰랐던 지역의 매력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다.

우선 '방문의 해' 이벤트를 눈여겨보자. 전라남도 장성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숙박·식당·카페 등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비문화가 살아 있는 필암서원, 황룡강의 꽃길, 편백숲이 펼쳐진 죽령산과 시원한 남창계곡, 백양사 계곡 등 여름 여행지로 손색없는 명소들이 가득하다. 이곳의 별미는 사찰음식. 산채비빔밥 한 그릇이면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력해 연중 진행 중인 '강원 관광 숙박 대전'은 이달의 추천 여행지에 따라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추천지는 '여기어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름엔 동해에서 서핑과 파티도 즐길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8월 추천 여행지는 강릉 & 태백, 9월은 속초 & 화천이니 참고해 두자(숙박세일페스타와는 다른 사업이니 혼동 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지역 거주자(2인 이상)가 전북에서 1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여행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숙소 선택의 갈림길에서 만 원 차이로 퀄리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 출처: 강원 방문의 해 홈페이지



사진 출처: 장성군 홈페이지



사진 출처: 코레일 홈페이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번잡한 도시 생활이 지겹다면, 농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촌캉스', '워케이션'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 중이며, 2021년 9만 9,025건에서 2024년에는 12만 9,288건으로 연간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유튜브에도 농촌 관광 브이로그가 다수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도시를 벗어나 고요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투어패스'를 출시해, 코레일·티머니GO·네이버·쿠팡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해당 패스를 구매하면 지정된 농촌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30%, 기차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등 추가 관광 혜택도 제공되어, 교통 걱정으로 망설이던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삼척, 영월, 제천, 논산, 단양, 정읍, 임실, 함평, 문경, 밀양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에서는 1박 체류 시 조건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산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남사예담촌의 고즈넉한 분위기, 천왕봉의 일출, 백운계곡의 시원한 물줄기, 약초 한정식이나 맑은 닭백숙 한 그릇까지 곁들이면... 이보다 완벽한 여름 여행이 또 있을까.

길게 떠나고 싶다면 한 달 살기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 최근 다양한 지자체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령·서산·논산·청양·태안 등 충남의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름은 한 달 살기지만, 실제로는 5일 이상 체류만 해도 신청 가능하니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부담 없다. 참여 대상은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나다. 올해 12월까지 5개 시군 중 한 곳 이상에서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한 번 살펴보자. 숙박비는 1박당 최대 5만 원, 부대비용은 1일 2만 원, 체험활동비는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고, 여행자 보험도 1인당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행도 하고, 지원도 받고, 실속 있는 여름휴가가 되는 셈이다. 여행 중에는 지역 축제나 농촌 체험에 참여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등 활동이 포함돼 있어 그냥 쉬다 오는 것 이상으로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의 소소한 일상, 고요한 시골의 여름밤, 평소엔 경험할 수 없던 농촌 프로그램까지... 정적인 심과 역동적인 체험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한 달 살기와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니, 여름휴가를 길게 계획 중이라면 '어디 갈까?' 고민하기 전에 지원 혜택부터 확인해 보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낯선 마을에서의 시간은 충분히 새롭고도 특별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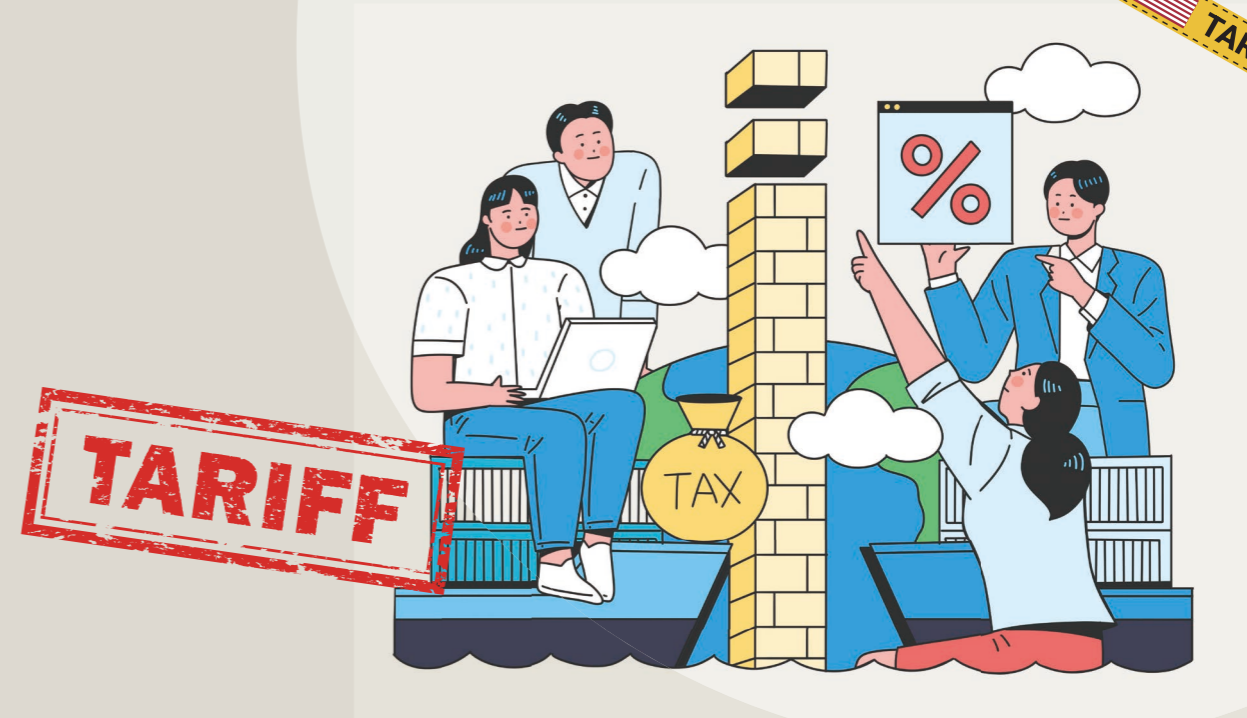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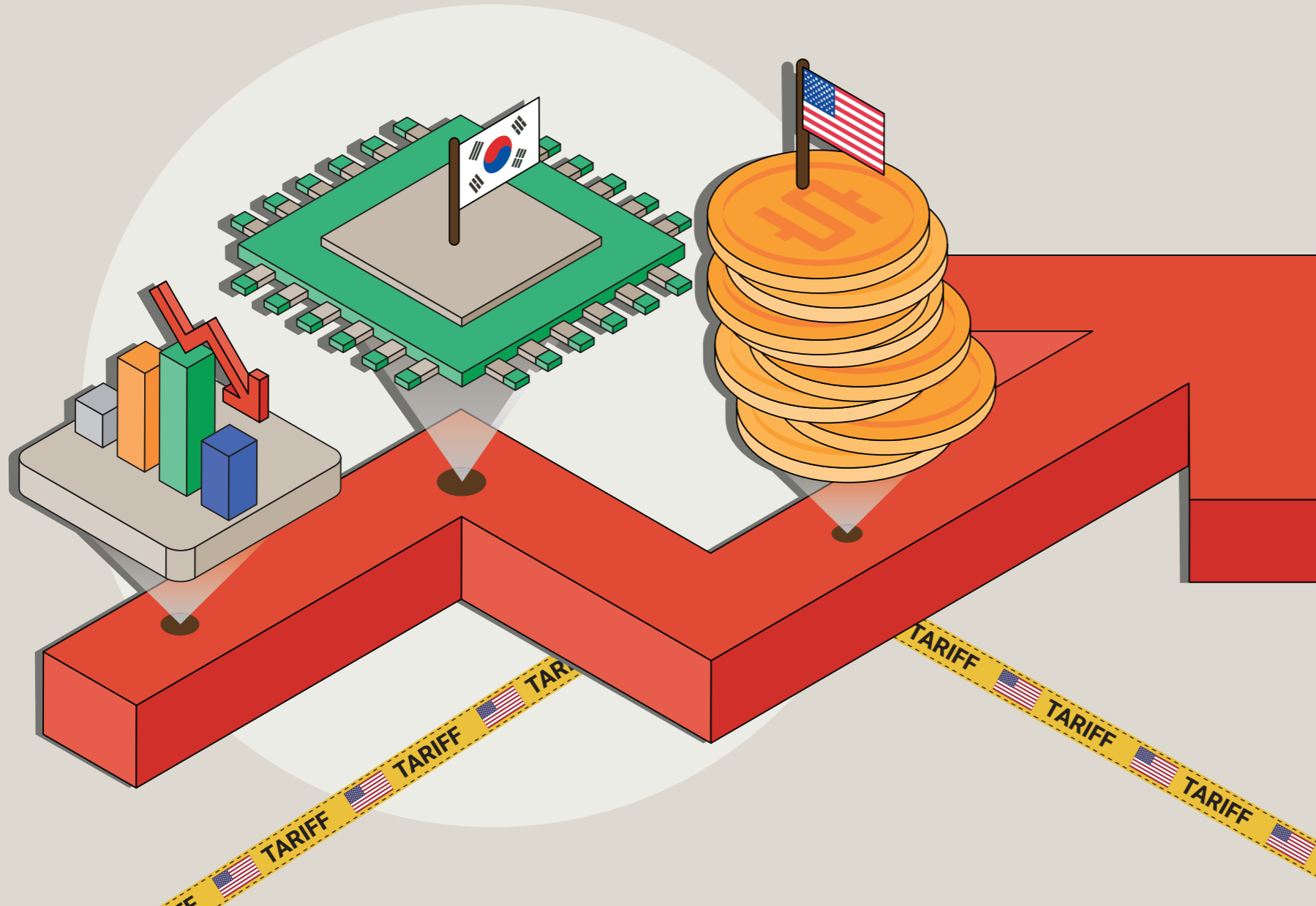
일상과 통장의 균형잡힌 리프레시!

여행을 떠날 때 현금을 두둑이 챙겨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은 더욱 그렇다. 간편하게 쓱 들어가는 카드 하나만 챙겨도 가볍고 스마트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 '여행 카드' 하면 해외여행에 특화된 혜택만 떠오르지만, 요즘은 국내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국내 여행 혜택도 풍성해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기 전, 잠깐만 시간을 들여 혜택부터 확인하자. '야놀자', '트리플' 같은 숙박·여행 앱과 제휴된 카드들은 할인은 물론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 제주도처럼 렌터카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렌터카 할인, 입장권 즉시 할인, 국내 패키지 여행 할인까지 가능한 카드들도 있다. 여행에 특화된 카드들은 대부분 여행앱과 연동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앱을 주로 쓰는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도 팁! 앞서 소개한 지자체의 여행 지원 혜택과 카드사의 이벤트 혜택을 더블로 챙긴다면, 이번 여름 여행은 가성비 넘치고 알찬 합리적 휴가가 될 것이다. 내 지갑도, 내 일상도 리프레시하며 현명한 여름 여행을 떠나보자.

매일 바뀌는 트럼프 관세 전략,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보호무역으로 이행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율 수준이 위협요인이다.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내용에 따라 기업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국제무역,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이행 된다고?

경제이론에서 보호무역은 자유무역에 비해 한 나라의 총잉여를 감소시키므로 자유무역이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에게 좋다.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영향이 많지만, 수입자유화는 무역수지 적자 및 경쟁력이 열위한 국내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급격히 보호무역으로 이행했다. 미국은 오하이오·미시간·펜실베이니아·인디애나주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자동차, 철강 산업이 쇠락해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자유무역에서 경영전략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확보였다. 부품과 제품을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해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판매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보호무역은 자국 우선권을 강요한다. 미국이 'America First'라면서 관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 관세협상 체결상황에 따라 수출, 경제 성장률 및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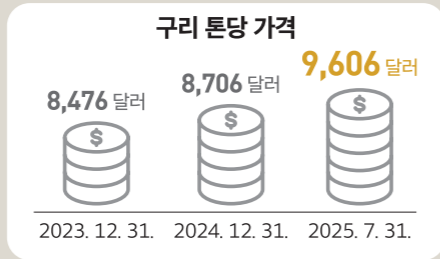
산업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관세 부과율 수준에 따라 기업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미국은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부터 일본,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25~40%의 국가별 관세 서한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심지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품목별 관세는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철강 파생 제품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자동차산업은 벌써 영향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에 최대 매출액을 올려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지만, 고율 관세로 영업이익은 15.7% 감소했다. KIA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1% 줄며 타격을 면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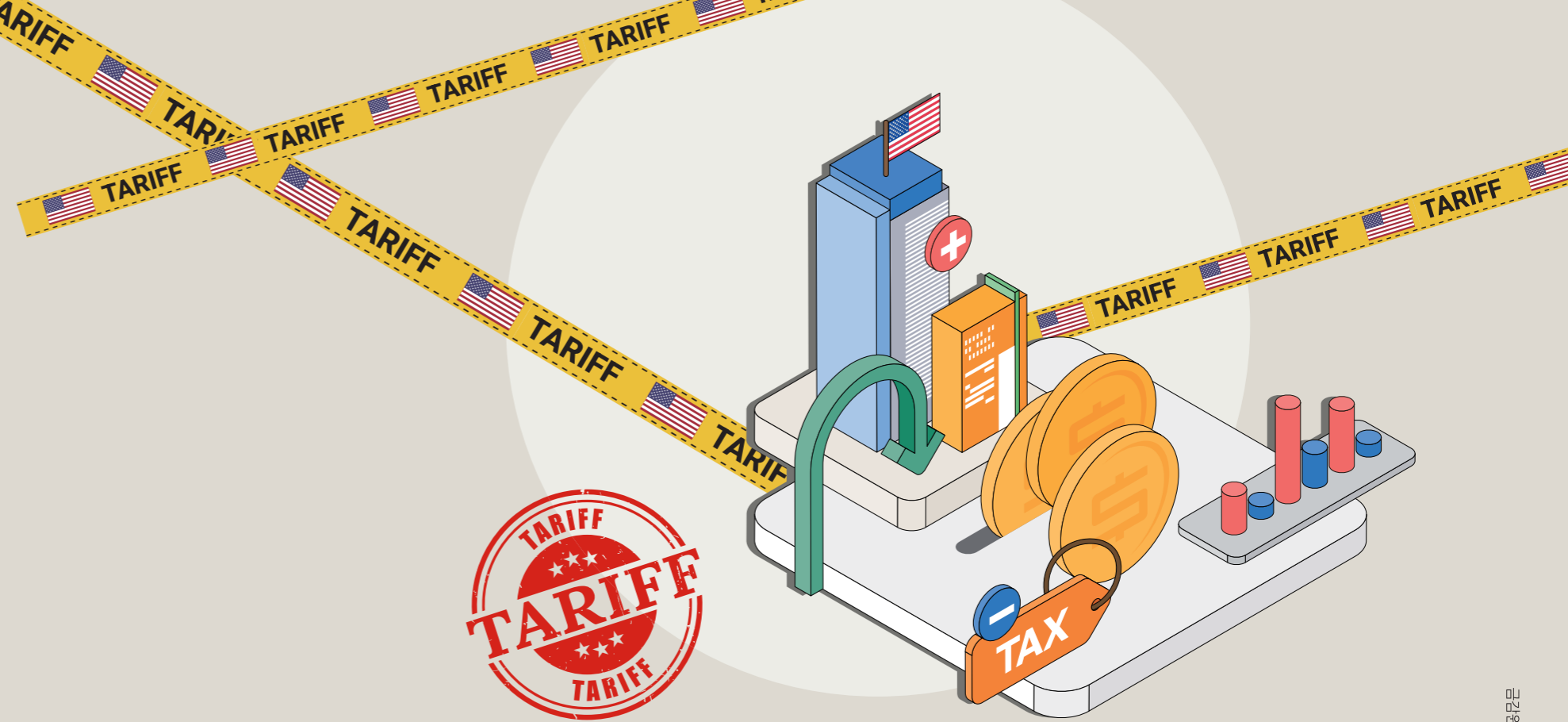
특히 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화와 품목별 관세율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을 7월 22일과 27일 각각 합의했다. 일본은 관세를 낮춘 대신에 총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쌀 수입량을 늘렸다. 경쟁국인 일본이 협상을 끝냄에 따라 한국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일본이 50%인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떨어뜨리지 못하자 철강업계는 비상이다. 물류비(당 50달러)와 관세를 더한 미국 판매가격은 미국산보다 7% 이상 비싸져서 미국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10대 무역적자국은 중국(2,695억 달러), 멕시코(1,566억 달러), 베트남(1,131억 달러), 아일랜드(803억 달러), 독일(762억 달러), 대만(676억 달러), 일본(624억 달러), 한국(601억 달러), 캐나다(545억 달러), 태국(416억 달러)이다. 미국은 우선 이들 국가와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지표 중에 구리 가격이 있다. 구리 가격 상승은 산업수요가 증가한 것이어서 세계경제의 상승을 전망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리 가격은 2024년 5월 24일 10,857달러까지 상승했지만 9,000달러 선에서 보합세를 보인다.



경제성장 전망이 미흡하면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밸류업 추진에 따라 매수자금 유입되면서 KOSPI가 3,200p를 넘을 정도로 상승했지만,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전망에 따라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밸류업은 자사주 처리와 배당금 분리과세도 필요하다. 자사주 매입의 취지는 소각을 통한 유통주식수 축소와 스탭옵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채권시장은 적자재정 확대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면 장기금리가 상승해 채권가격이 하락한다. 7월에 미국 정부채 30년은 5.02%까지 상승했고,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은 2.91%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관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 번째,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 산업은 생형형 AI, 다기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며, IoT는 다양한 기기가 데이터를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 기업은 미래 기술 트렌드를 산업에 접목시켜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되도록 월등하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높여야 하며, 정책당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에 진출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익성 위주로 경영해야 한다. 자본 투입과 신기술 도입이 결합해야 하며, 임직원의 지식능력 확대와 경영 아이디어가 늘어나야 한다.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지급이자)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40.9%이다. 기업 규모나 매출액 같은 외형 위주 경영을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 경영을 실시해야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차입금 조달에 의한 레버리지 경영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차입금을 축소해 가는 재무전략을 실시하면 지급이자 감소해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세 번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투자자들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참여시키려면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야 한다. 금동락을 반복하면 손실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시장을 떠난다. 정책당국과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을 넘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배당금이 늘어나고 KOSPI 5,000p를 기대할 수 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수입물가를 내리므로 환율도 급등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 채권시장은 부실채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장 전에 철저한 신용분석 평가가 필요하다.

서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저축은행이 달라진다!



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축은행? 나랑은 상관없는 곳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가족이나 친구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목돈 마련의 방법을 찾다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곁을 지켜온 저축은행이 이제 한층 더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신 비율 계산 방식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책금융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기존 130%였던 가중치를 1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유인이 보다 강화된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쏠린 대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대신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은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으로 여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민간중금리대출 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든든한 금융 우산이 되어주는 저축은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지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더욱 촘촘한 제도 안에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을 향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앞으로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는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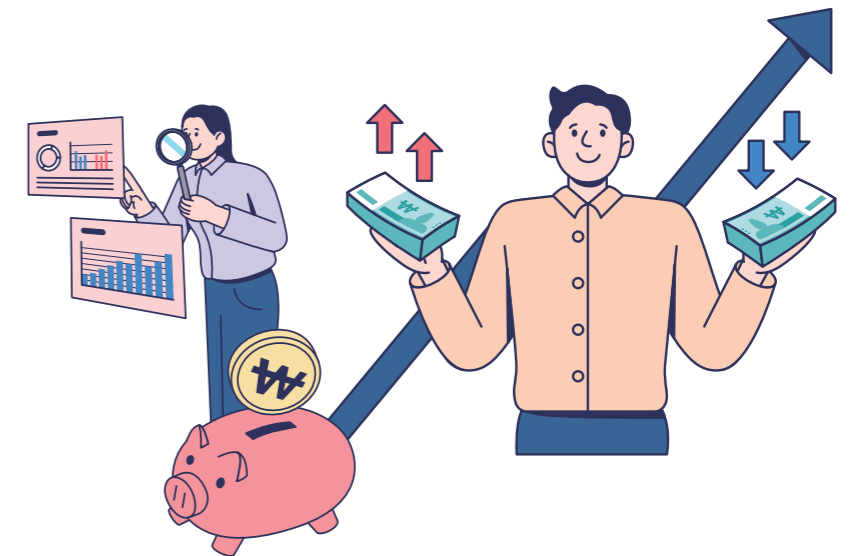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더욱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고정 이하로 분류되던 일부 여신이라도 예·적금 담보나 금융기관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면 정상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위험에 기반하여 여신 건전성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2024년 6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도 반영해,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부동산 PF가 운영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부업자 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에 법원 경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번 규정들은 규제·법제처의 심사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최종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더 세밀해진 제도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은 지역과 서민 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외국환거래 유의 사항 살펴보기

외국환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와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1,137건에 달했다. 그중에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외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본다.



Q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환거래인가요?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나 변경 보고를 해야 하나요?

네, 외국환거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기존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가 필요하며, 신고(보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는 '신고'를 일상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2. 가족이 보유하던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는데, 최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거주자 간의 해외 부동산 상속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친구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증권의 종류나 수량 등 신고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지분 10% 이상의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미국 국적의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개인 간의 거래인데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는 개인 간 거래라도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금의 목적, 상환조건 등을 거래하는 은행 등에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출·차입의 금액, 거래 주체 등에 따라 신고하는 기관이 달라지니 이 점도 꼭 확인하세요.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보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신고·보고기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5천만 불 이하) → 기획재정부 신고(5천만 불 초과)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신고
	원화	10억 원 이하 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10억 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신고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외화·원화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미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신고	

※ (참고) 금전대차의 구체적 내용(대출금액, 차입·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신고(보고)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신고(보고)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해외 회사와 미수금과 하자보상금을 상계 처리했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채무 상계는 사전신고 또는 처리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계뿐만 아니라, 여러 당사자와 거래를 진행했다면,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제재내용(자본거래 위반 관련)

- 수사기관 통보(위반금액 20억 원 초과)
- 과태료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 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 원
 - 보고사항 : 건당 2백만 원
- 경고(위반금액 5만달러 이하)

Q&A

단양 어디까지 가봤니? 단양의 핫플을 찾아서

단양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로 꼽힌다. 단양8경으로 유명한 역사적 명승지는 물론이고 최근에 핫플에 등극한 신상 여행지까지. 단양의 여행 아이템은 다양하다. 절벽을 잇는 잔도길과 단양강이 발아래 펼쳐지는 만천하스카이워크, 태곳적 신비를 간직한 고수동굴, 짜릿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 매력적인 여행지 단양에서 무더위를 잊어보자.

단양강을 따라 절벽에 선반처럼 매달린 잔도길

이건 트레킹 그 이상의 감동이야!

중국의 항산 절벽에 설치된 가교를 뜻하는 '잔도'가 단양에 있다. 단양강 잔도가 그것인데, 공식 명칭은 '수양개역사문화길'이지만 전체 구간에서 백미인 이곳을 흔히 '잔도길'이라 부른다. 단양역에서 출발하면 상진대교를 건너 왼편에 잔도길 진입로가 보인다. 단양역에서 1km 남짓한 거리다. 종착지인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까지는 4.2km가량 된다.

본격적인 잔도길은 상진대교와 철교를 지나면서부터다. 강물 위 깎아지른 절벽 20m 정도 위치에 잔도길이 설치되어 있다. 보기엔 아찔하지만 실제로 걸어나면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눈이 호사를 즐긴다. 잔잔한 수면에 물그림자를 드리운 잔도의 모습이 이국적이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 위로 기암괴석의 물그림자가 춤추듯 일렁인다. 잔도 끝자락에 이르면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연결된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단양강 수면에서 80~90m 지점에 25m 높이로 세워진 전망대인데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압도적이다. 파배기처럼 배배 꼬여 하늘로 솟구친 전망대를 향해 한발 한발 오르면 발아래 전망이 조금씩 넓어진다. 전망대 꼭짓점에 이르면 허공을 향해 돌출된 전망대가 보인다. 전망대 바닥은 천 길 낭떠러지가 고스란히 보이도록 고강도 삼중 투명 강화 유리를 설치해 놓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늘을 걷는 기분이다. 발끝에서부터 찌릿하게 전해지는 야릇한 느낌. 싫지만 미워할 수 없고,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다.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았지만 산 정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장쾌한 풍경이다. 손에 잡힐 것 같은 단양 읍내와 멀리 소백산까지 또렷하게 조망된다. 참고로 잔도길과 만천하스카이워크는 휠체어나 무모차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탐방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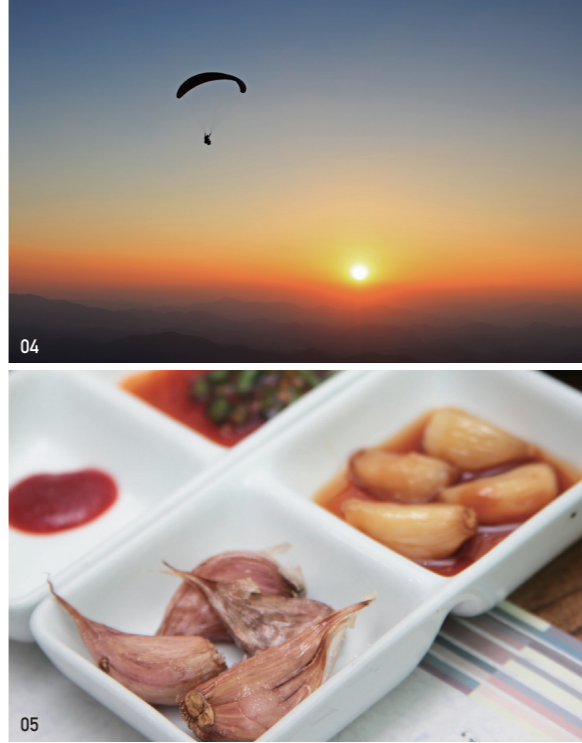
만천하스카이워크 아래에 짚와이어가 있다. 산기슭을 따라 980m 구간을 최고 속도 약 80km로 하강한다. 소요 시간은 1분 남짓으로 눈 깜짝할 사이다.

태곳적 신비 고스란히 간직한 땅속 천연 냉장고

단양읍 고수리에 가면 신비로운 지하 세계가 펼쳐진다. 1976년에 문을 연 천연기념물 단양 고수동굴이다. 오랜 세월 인기 관광지로서 사랑받아 온 터라 내부 구조물이 낡고 열악해 2015년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재개장과 함께 다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단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로 손꼽힌다. 이 일대에 시멘트 공장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석회암 때문이다. 덕분에 석회동굴도 여럿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고수동굴을 비롯해 천동동굴, 온달동굴, 노동동굴 등 네 곳이나 된다. 그중 고수동굴은 약 2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수동굴은 총 길이 1,395m 중 940m 구간만 개방되고 나머지 구역은 안전과 보존 차원에서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탐방 소요 시간은 대략 왕복 40분이며 동굴 특성상 어둡고 계단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동굴 내부 평균온도가 15~17℃로 옷이 얇고 짧다면 걸옷을 챙기는 게 좋다.

동굴에서 챙겨볼 것은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다. 이들을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동굴 천장에서 탄산칼슘이 용해된 지하수가 땅에 떨어지면 석순이 생기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석순과 반대로 천장에 매달린 것을 종유석, 이 둘이 만나 기둥이 된 것을 석주라 부른다. 종유석, 석순, 석주는 모두 독특한 모양을 자아내는데 상상하기에 따라 마리아상, 만물상, 천지창조, 사랑바위 등 온갖 이름이 붙어 있다.



01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02 짚와이어는 산기슭을 따라 하강한다.
03 태곳적 신비가 가득한 고수동굴

하늘을 비상하는 유쾌, 상쾌, 통쾌한 짜릿함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면 하늘과 맞닿은 듯한 공터에 이른다. 해발 600m에 자리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다. 누군가 이곳의 이름을 묻는다면 '하늘공원'이라 불러도 될 만큼 시야가 탁 트였다. 공터 끝자락엔 포토존이 설치돼 있어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여기서 바라보는 단양의 풍경은 거침없고 막힘없다. 이처럼 탁 트인 풍경에 감탄하며 여행객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가도 "뛰어! 뛰어! 뛰어!" 하는 구령에 귀를 쫓긋 세운다. 소리의 진원지에서는 달팽이처럼 등짐을 짊어지고 뒹박질하는 패러글라이더가 보인다. 그리고 이어지는 외마디 비명 "으악!"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아간 이후 활공장엔 다시 평온이 깃든다.

'새처럼 나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밀려온다면 패러글라이딩 체험에 도전해 보자. 초보자도 안전교육을 받고 교관의 지시에 따르면 하늘을 직접 날아볼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활강대 앞에 서면 구경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손에 땀이 마르지 않는다. 애써 태연한 척해 보지만, 긴장감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활강 준비가 끝나면 등 뒤에 바짝 달라붙은 교관이 소리 친다.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예리하고 비수보다 날카로우며 깃털을



04 단양 활공장 일몰
05 구운마늘, 찜마늘 등은 단양의 별미다.
06 패러글라이딩은 활공장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다.

찢을 듯 후벼 판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하늘이다. 하늘을 유영 하듯 날고 있는 자기 모습에 감격하고 또 감격한다. 겁에 질려 쫓길 쫓길하던 심장은 짜릿한 쾌감으로 변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유쾌하다는 것을, 바람을 가르르는 것은 한없이 상쾌하다는 것을. 내 인생 최초의 비행은 성공이다.

패러글라이딩 활공 시간은 보통 15분 안팎이다. 숙련된 교관이 등 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작해 주기 때문에 체험자는 그냥 믿고 몸을 맡기면 된다. 적잖은 비용이라 부담스럽지만 평생 한 번은 체험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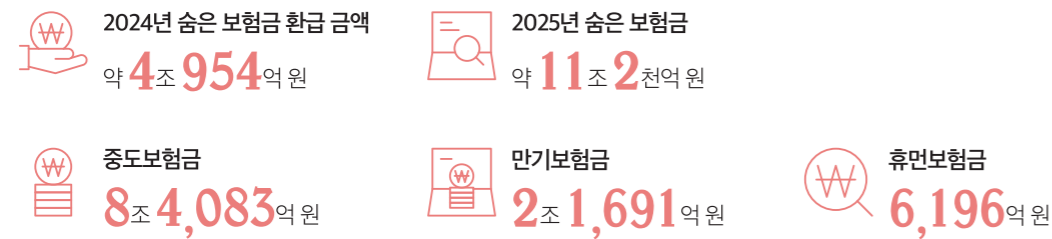
여행정보

- **맛집:** 마늘은 단양의 특산물이다. 마늘을 주재료로 음식을 내놓는 식당이 꽤 있다. 그중 단양구경시장은 마늘순대, 마늘만두, 마늘빵, 마늘갈비 등 마늘요리가 지천이다. 이곳을 단양8경에 1을 더한 9경이라 부르지는 알법하다. 한상차림 식당으로 **마늘석갈비막국수**(043-423-7575)는 마늘로 맛을 낸 돼지갈비와 고추장 갈비를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에 선정된 **장다리식당**(043-423-3960)은 마늘한정식에서 다양한 마늘요리를 선보인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카페 산**(0507-1353-0868)이 있다. 단양 빵지순례지로 손꼽힐 만큼 빵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탁 트인 풍경 감상과 인생사진까지 찍을 수 있으니 1석3조인 셈이다.
- **문의:** 단양 관광안내소 043-420-3035

숨어 있는 보험금, 이렇게 찾으세요



한 번쯤은 내가 들었던 보험이 무엇인지,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헛갈린 적 있을까? 아무리 꼼꼼하게 가입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기 마련인데 알고 보면 이미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내 돈인데도' 그냥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올해만 해도 무려 11조 2천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 지금부터 '숨은 내 보험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매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11조 2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 숨은보험금, 이렇게 찾아보세요!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①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 바로가기

✓ 올해에는 이런 점이 달라져요!

① 안내장에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안내한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안내장에는 정확한 적립 이자율이 함께 안내된다. 소비자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안내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연 1회 이상 제공된다.

② 고령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장을 제공하고, 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핵심 정보는 첫 페이지에 기재한다.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또한 고령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 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확대)한다.

③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조회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우편 안내를 확대한다. 또한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소비자에겐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ART 3



FSS LIVE

38
FSS Together
우정 400%!
파란만장 문경 여행기

52
나를 가꾸는 시간
햇살과 낭만이 넘실거렸던
나만의 유화그리기 클래스

44
FSS TalkTalk
나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6
FSS 뉴스

48
우리는 호적메이트
버터 등뽕, 사랑도 등뽕!
겉은 바삭, 안은 부드러운 구움 과자 만들기

58
뽀하지 않은 퀴즈

우정 400%! 파란만장 문경 여행기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친해지기도 어렵죠” 웃음 만발이던 4명의 문경 여행은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의 도움을 받은 운명적인 날이었다. 전날 비가 잔뜩 내렸는데도 마법처럼 비가 그쳤던, 활기와 웃음을 잔뜩 담은 문경 여행을 돌아봤다.



공정익템 Yes문경

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경 새 재

MG 문경시



동료의 고향을 방문하다

‘이 사람들, 직장 동료일까, 아니면 동네 친구들일까?’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 만큼 유쾌한 네 남자. 친구처럼 편한 동료인 함주성 조사역의 고향이라 문경을 찾았다는 석윤수 조사역, 옥유석 조사역, 임준목 검사역은 시종일관 서로 장난을 치다가도, 문경의 역사나 관광지 곳곳을 둘러볼 때만큼은 사뭇 진지한 태도였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계절 나기를 보내기 위해 선택한 문경은 비록 전날 쏟아진 폭우 덕에 계곡 방문은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시원한 숲길을 거닐며 행복을 느꼈던 하루였다.

성격이 비슷해서 친해졌다는 넷은 금융감독원 동기다. 고된 업무 끝에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고, 같이 마라톤을 나가기도 하고, 여행을 즐기기도 하는 죽마고우 같은 관계다.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여행이라는 문경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라 선택한 곳이다. 석윤수 조사역은 “저는 일산, 옥유석 조사역은 상주, 임준목 검사역은 조치원 출신이거든요. 여행이니깐 기왕이면 가장 먼 곳으로 떠나려고 했죠. 어제 함주성 조사역 집에 방문해 집밥을 얻어먹었는데, 밥도 정말 꿀맛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며 해맑게 웃었다. 함주성 조사역은 “제 고향이라서 여행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오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뤘네요!”라며 맞장구쳤다.

사실 문경은 이들 외에도 같은 국에 소속된 동료들이 모두 오고 싶어 하는 여행지라고. 한두 번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그의 말에서 범상치 않은 인싸력이 느껴졌다. 직장 동료의 고향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가요? 오히려 재미있지 않아요?”라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향이 맞아 친해졌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문경새재를 몸으로 느낀다

이날은 문경새재를 풀코스로 즐기는 날이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옛길박물관. 문경의 역사와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옛길과 문경새재아리랑, 기록물, 문경의 위성지도를 거닐면서 함주성 조사역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옥유석 조사역이 말했다. “제 고향인 상주는 문경 옆이거든요. 저도 문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한편 석윤수 조사역과 임준목 검사역은 가이드를 읽으며 “충주 옆이 문경인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대화하면서 체험학습을 온 모범생처럼 박물관을 즐겼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진입했다.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쳐서 인지 하늘은 조금 어두웠지만, 물방울을 머금은 푸른 잔디와 돌멩이, 계곡, 흙은 한층 싱그러워 보였다. 넷은 가장 먼저 ‘전동차’를 탔다. 워낙 부지가 넓고 볼거리가 많은 문경새재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차다.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약 5분간 달려 도착한 곳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해를 품은 달>, <관상>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세트장이었던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문경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넷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맨발 걷기 언제 하나?” 석윤수 조사역이 물었다. 그들은 세트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과감히 옆에 있는 숲길로 방향을 틀었다.

“계곡에서 발 씻으면 돼!” 흙길은 물 범벅이었다. 처음에는 함주성 조사역과 석윤수 조사역만이 맨발로 걸었다. 임준목 검사역은 귀찮다는 이유로, 옥유석 조사역은 고민하다가 계곡에서 발을 씻자는 함주성 조사역의 말에 넘어가 신발을 벗었다. 서늘한 흙을 밟으며 숲을 만끽하는 그들은 아까까지 웃고 장난을 쳤던 모습과 비교가 될 만큼 진지해 보였다.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걸으니 기분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의 감축을 그대로 느끼는 듯싶었다. “땀별이면 뜨거워서 걷지도 못하거든요. 운이 좋았죠!” 옥유석 조사역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지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시간

맨발로 걸어서일까. 계곡은 여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시원하기 짝이 없었다. 냇은 계곡이 너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중간 계곡을 찍기도 하고, 길 아래로 난 작은 고랑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조성한 돌 길을 맨발로 걸으며 서로 고통의 역할을 체크하기도 했다. 임준목 검사역은 은은하게 웃으며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잠시 차분했던 분위기는, 발을 씻는 공간에 도착했을 때 180도 바뀌었다. 발을 담그던 셋이 갑자기 물장구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왜 튀기는 거야”, “그냥!”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를 물장구가 계속되었다. 조사역들의 웃이 마치 해수욕을 즐긴 사람들처럼 잔뜩 젖었다. 발을 씻겨주는 곳에 잠시 대피해 있던 임준목 검사역만이 물놀이를 마친 함주성 조사역의 발을 조용히 씻겨주었다.

신발을 다시 신은 후에는 셔틀버스를 타느라 가지 못했던 문경새재 곳곳을 둘러보았다. 돌탑을 쌓으면 소원을 빌어준다는 곳에서 돌을 쌓기도 하고, 관문의 풍경을 찍으며 길을 거닐었다. 동쪽으로는 주흘산, 서쪽으로는 조령산이 길게 뻗어 있어 한층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주흘관 앞에서 점프하며 명랑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다. 냇은 문경새재라고 크게 쓰여있는 구조물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실컷 놀았으니 그다음에는 배를 채울 차례. 문경의 명물이라는 약돌돼지를 먹으며 냇은 여행의 끝을 경쾌하게 마무리했다.



직장 동료가 아니라 꼭 오랜 동네 친구들처럼 친근하고 장난스럽게 지내던 네 사람. ‘새도 날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지닌 문경‘새재’라는 무거운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여행은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다. “20년,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편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싶어요”라고 대답한 석윤수 조사역의 말처럼, 이들의 우정이 기나긴 역사를 품은 문경새재처럼 오랫동안 깊게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MINI INTERVIEW



석윤수 조사역

가장 친한 동기의 부모님도 뵙고, 놀고 싶었던 문경새재도 방문할 수 있어 좋았어요.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여행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도 처음이었는데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시원함이라 무척 새로웠어요.

옥유석 조사역

문경을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은 처음이에요. 가족들과 고향 친구끼리 오면 익숙한 동네 위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니 익숙한 곳에서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임준목 검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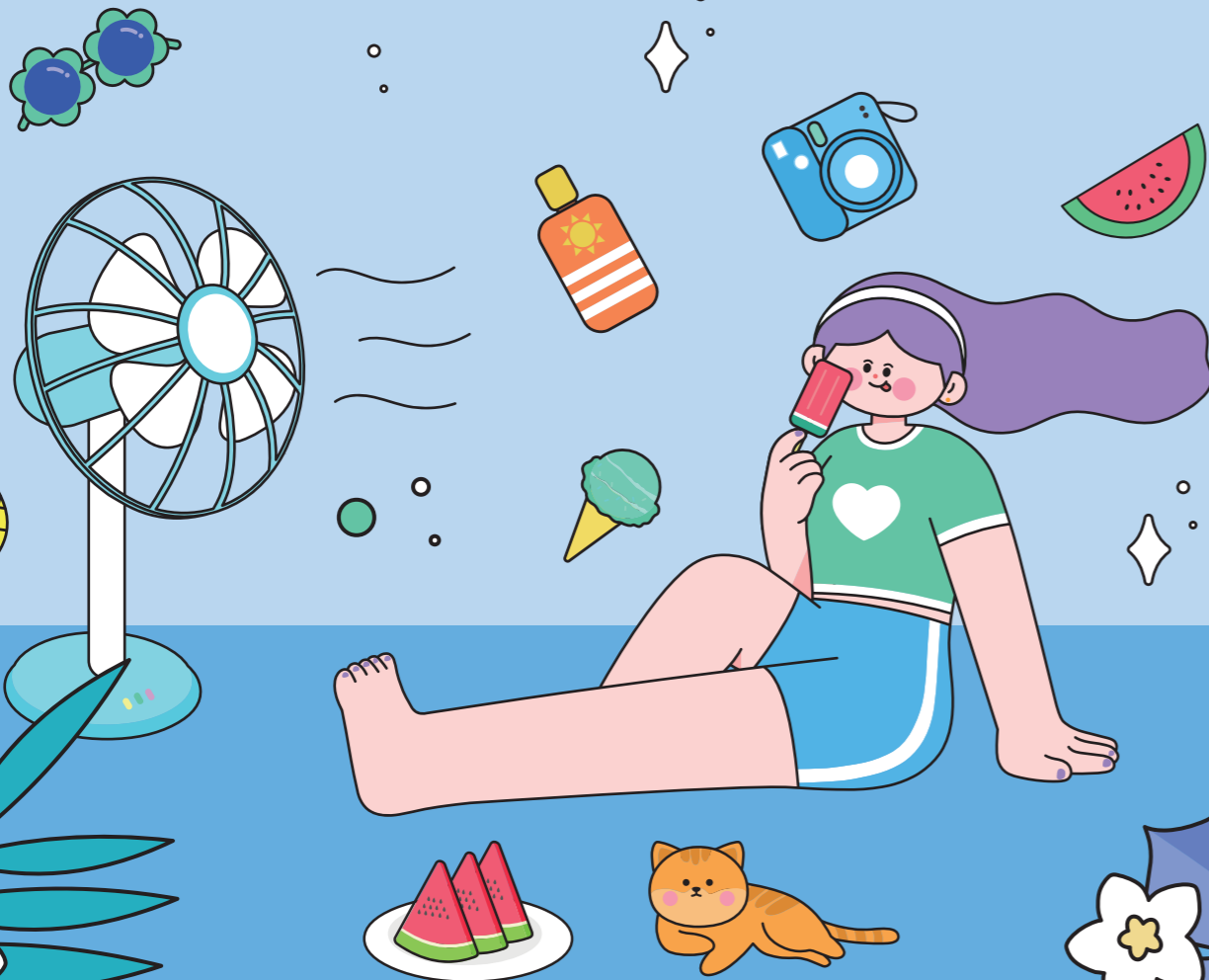
주흘관 앞에서 점프한 게 기억에 남네요. 똑같은 포즈를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저희의 우정을 더 깊게, 더 단합해서 가보자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여행 가고 싶어요!

함주성 조사역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저는 제 고향이라 좋은데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요. 그래도 모두 좋아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발 씻는 곳에서 물장구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옥유석 조사역이 먼저...

나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마다 더 심해지는 여름 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각자만의 여름나기 비법이 있을 것이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FSS인들이 전하는 더위 극복 노하우를 들어봤다.



에어컨과 어울리는 디저트 환상의 조합으로 여름 타파!

임혜영 비서실 총무역



에어컨이 땀땀한 매장을 찾아가서 그릭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아사이볼을 올려서 먹어요.

실내 바캉스 어때요?

황인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선임검사역



역시 여름에는 실내죠. 에어컨 땀땀하게 틀어놓은 시원한 실내 전시회 구경하면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요.

더블 모터로 간다

박영준 조사1국 팀장



목도리형 선풍기와 손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시원함도 두 배!



양우산은 필수

신다혜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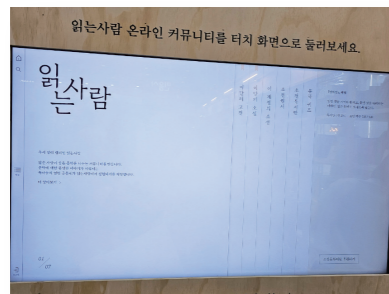
양우산을 쓰면 무더운 여름날에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도 거뜰해져요.

차가운 컵에 시원한 생맥주 한잔!

권택철 자본시장감독국 조사역

시원한 얼음 생맥주 한잔하면서 더위를 날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원한 유리컵이에요. 집에서는 유리잔을 미리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놓은 다음 맥주를 따라 마시면 됩니다!





책과 함께 예술 휴가를 떠나요

이지연 디지털금융총괄국 선임조사역

유료 도서관인 '소전서점'의 '북아트갤러리'에서 책을 읽으면 더위는 사라지고 어느덧 읽는 사람이 되어 인룡할 양식과 같은 300권의 고전 추천 목록을 손에 쥐게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떠나요

김정은 정보화전략국 조사역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가요!
한국이 더워서 시원한 샤프로에 다녀왔어요.

역시 시원한 커피가 최고!

안소현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원센터) 조사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여름을 견뎌냅니다.



상큼한 맛과 함께 더위를 즐겨요

양현빈 디지털금융총괄국 조사역



더운 날에는 역시 친구들과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보내는 게 최고예요.



살얼음에 달콤함 한 스푼

이태리 기획조정국 조사역



친구들과 시원한 빙수를 먹으면
더위가 싹 물러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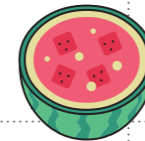


수박으로 느끼는 여름의 맛

육송희 금융사기대응단 조사역



날이 더울 때 저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수박 주스를 마십니다!
여름에만 마실 수 있는 음료라
여름이 조금은 즐거워져요.



수박 한입, 선풍기 승~

전성우 보험검사1국 수석검사역



샤워 후 수박을 먹고
선풍기를 켜면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찬물 샤워가 최고예요

서길원 전자금융검사국 선임검사역



아이와 아파트를 한 바퀴 달리고 난 뒤,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더위가 가십니다.

여름 음식을 손수 만들어요!

이서연 서민금융보호국 조사역



여름 별미인 콩국수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여름을 물리칩니다.



물놀이를 시원하게

조희래 공보실 선임조사역

가족이나 친구들과 바다나 워터파크에 가서 물은 맞으면서 더위를 쫓습니다.
평소에는 물에 젖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여름이 되어 더워질 때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도 되니 더 좋아요!





버터 듬뿍, 사랑도 듬뿍! 겉은 바삭, 안은 부드러운 구움 과자 만들기

류영창 선임조사역, 아들 류이산 군

7월은 여름의 싱그러움이 물씬 다가오는 달이다. 만남도 많고 활동도 활발한 이런 시기에 가족과 함께 디저트를 만들고 정답게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함이 스르르 전해지는 구움 과자를 만들기 위해 정보화전략국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아들과 함께 휘핑기를 들었다.



붕어빵 부자의 디저트 만들기

투명한 햇살이 반짝이는 망원동의 거리를 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놀이터 앞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크게 잘린 버터 조각, 쿠킹틀, 각종 베이킹 도구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둘은, 아빠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챌 만큼 똑닮은 붕어빵 부자였다. “가끔 학교에서 빵을 만들더라고요. 저보다 베이킹 실력이 더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아들인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류이산 군이 “엄청 잘 하진 않는데”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오늘 만들 디저트는 까눌레와 피낭시에 총 두 가지였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까눌레는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버터 향을 물씬 머금은 피낭시에는 류이산 군이 만들기로 했다. 버터와 설탕이 잔뜩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류이산 군은 “저는 설탕을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덜 넣고 싶어요”라며 취향을 어필했다. 까눌레(Canelé)는 ‘주름진’이라는 의미를 지닌 디저트로, 우리나라의 국화빵과 흡사하게 생겼고, 실제로 국화 모양 틀로 굽는다. 다만 반죽을 하루 숙성해야 하므로 오늘은 클래스에서 만든 까눌레를 구워보고, 오늘 만든 까눌레 반죽은 다음 날 구우면 된다고. 럼 같은 술을 넣어서 구우면 풍미가 살아난다는 강사의 말에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소주는 안 되는 거죠?”라고 물었다. 아마 소주 맛이 날 거라는 답이 되돌아 왔다. 피낭시에(Financier)는 ‘재정가, 금융가’를 뜻하는 단어에서 시작했으며 실제로 금괴 모양처럼 생겼다. 금융감독원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였다.



함께라서 더욱 달콤한 시간

처음은 헤이즐넛 버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피낭시에에 들어가는 버터는 강불로 빠르게 태워주어야 한다. 마치 헤이즐넛처럼 고소한 풍미가 난다고 해서 헤이즐넛 버터로 불린다. 까눌레는 우유 안에 버터를 넣어 녹을 때까지 끓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헤이즐넛 버터가 더 강한 불을 이용하고 팔 힘이 더 필요하다 보니 더 고된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류이산 군이 도전해 보겠다고 주력으로 열심히 버터를 휘저었다. “우와 녹는다!” 큼지막한 버터가 녹으며 기포가 조금씩 생성되는 것이 보일 때 만족스러운 듯 팔 힘을 더 쓰기 시작했다. 뜨겁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맑은 일은 끝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보였다. “아빠 이것 봐요!” 클래스에서 미리 만들어 둔 반죽을 사용하기 위해 까눌레 틀에 버터를 바르고 있던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나네”라며 신기해했다. 까눌레 반죽은 오븐으로 금방 쏙 들어갔다.

그다음에는 노른자를 분리한 뒤 섞는다. “아빠가 더 쉬운 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그마한 손으로 버터를 짓고, 흰자를 넣고, 아몬드 가루를 넣어 거품기로 섞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자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아냐, 재미있어” 그러나 류이산 군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오히려 아빠를 안심 지켜주며 반죽했다

아무리 에어컨 온도를 내리고 선풍기를 틀어도, 무더운 여름날 볼 앞에 앉아 계속 버터를 짓고 반죽을 섞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부자는 같이 클래스를 하는 것이 재미있는 듯 감사하게 “설탕은 이 정도만 넣을까요?”, “이 버터를 다 넣는 건가요?”라고 물으며 클래스를 열정적으로 즐겼다.



영차영차, 돌고 돌는 베이킹

그다음은 까눌레를 만들 시간이었다. 우선 소스 팬에 우유와 버터를 넣고 약불로 보글보글 끓인다. 피낭시에와 다르게 까눌레는 느리게 천천히 끓이는 디저트로, 반죽 자체가 아주 묽은 게 특징이다. 다 식은 우유 혼합물에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섞어주는데, 설탕이 덩어리가 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다. “까눌레는 처음 들어봤는데 신기해요.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던 류이산 군이 말했다. 계속 설탕의 양과 건강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강사가 “설탕 하루 권장량은 25g인데, 오늘은 120g 정도 들어가요. 아주 낮게 잡아도요!”라고 이야기하자, 류이산 군이 말도 안 된다며 입을 크게 벌렸다. 역시 금융감독원에 다니고 있어서인지 류영창 선임조사역이 바로 계산을 마쳤다.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말아야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까눌레 반죽을 다 끝내자, 마침 다 구워진 까눌레가 나왔다. 까눌레를 처음 본다는 두 부자는 신기하다며 까눌레를 나눠서 먹었다. “겉이 엄청 바삭하고 안이 계란빵처럼 부드러워요.” 류이산 군은 마음에 드는 듯했다.



다음에는 피낭시에 반죽을 쪄다. 오븐에서 부풀었을 때 너무 넘치지 않을 정도로 80% 정도 반죽을 채우는데, 까눌레와 다르게 밀도가 있는 반죽이기에 류영창 선임조사역도 팔을 건어붙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반죽을 쪄던 그가 이야기했다. 마지막에는 반죽의 주인인 류이산 군의 터치가 들어갔다. 양이 가장 부족해 보이는 틀 위에 반죽을 짜 넣고, 피낭시에에는 오븐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구웠던 까눌레와 달리 피낭시에에는 20분가량 구우면 끝이 난다. 반죽 짜기로 체력을 소모한 부자는 앉아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두 번째예요!

이들에게는 독특한 일화가 있다. 바로 10년 전에도 <금감원이야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 11살 류이산 군이 어떻게 참여했나 싶겠지만, 당시 아내와 함께 클래스를 신청했고, 류이산 군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까지 총 2회 참여하게 된 것이다. 류영창 선임조사역은 “그때 참여한 <금감원이야기>를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데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산이와 주말에 함께 디저트를 만들며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청하게 됐어요”라며 일화를 알려주었다. “그럼 나도 2회 참여한 거네, 정말 신기하다!” 류이산 군이 옆에서 해맑게 웃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쿠킹 클래스였을까? 류이산 군이 빵을 구워보기도 했고, 요즘 바빠서 아들과 시간을 보낼 일이 없어 함께 즐기

“나도 2회 참여한 거네,
정말 신기하다!”

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이전에 참여했던 <금감원이야기>와 같이 보면 기분이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라며 류영창 선임조사역은 이야기했다.

금방 다 구운 피낭시에가 나왔다. “제가 만든 거라 더 신기해요.” 요리사가 꿈이라던 류이산 군은 피낭시에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들은 피낭시에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 뒤 하나 먹어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류영창 선임조사역도 “잘 만들었어. 우리 내일은 까눌레 구워보자”라며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둘은 다 구운 디저트를 챙긴 뒤 취재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줬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물이라며 디저트를 건네는 모습이 여전히 밝아 보였다. 선물을 나누어준 둘은 엄마가 망원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오라고 했으며 이곳의 명물이라는 떡볶이를 사러 떠났다. 오늘 만든 디저트는 집에 있는 동생과 나눠 먹어야겠다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화목했던 오늘의 클래스처럼, 류영창 선임조사역 가족의 여름도 푸르고 명랑하게 빛나기를 바라본다.



구움 과자 만들기 생생 후기



류영창 선임조사역

아들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의젓하게 잘 해내는 걸 보니 대견했어요.



아들 류이산 군

구움 과자는 처음 만들어 봐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다 만든 다음에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와 이런 시간을 함께해서 더 기뻐요.

누구나 한 번쯤은 흰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선과 색으로 가득 채워보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의 어느 날, 그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 세 사람이 별이 잘 드는 아틀리에에 모였다. 꾸덕꾸덕한 유화를 손에 묻히며 함께한 그날의 풍경을 짧은 스케치로 소개한다.

햇살과 낭만이 넘실거렸던 나만의 유화 그리기 클래스

기다려왔던 유화 그리기 시간

곧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아틀리에를 감싼 공기는 유난히 맑고 밝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밝은 빛깔의 옷을 입은 금융투자검사3국의 정승미 팀장이었다. 이어 자산운용감독국의 김보현 조사역과 금융시장안정국의 임정아 선임조사역이 순서대로 도착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는 동기였지만, 정승미 팀장과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셋은 짧은 인사를 나눴고,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는 길에 빵 좀 사 왔어요. 드실래요?”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불임성 있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었다. 이날 모인 세 사람은 모두 언젠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마침 클래스 신청 공지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고 이야기했다.

김보현 조사역과 임정아 조사역은 <금감원이야기>에서 진행하는 클래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김보현 조사역은 약 5년 전 목공방 클래스를, 임정아 조사역은 팔찌 만들기 클래스를 즐겼다. “그때 누구랑 신청했어? 와, 너 그 언니랑 엄청 친하구나!” 김보현 조사역은 임정아 선임조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붙였다. 잠시 둘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직장 동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친근한 투였다. 정승미 팀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다음엔 저도 선배 한 분 모시고 같이 신청해 봐야겠네요”라며 웃었다. 이번 클래스는 직접 그린 그림을 방에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유화도 스케치부터

처음은 스케치로 시작했다. 초보자는 스케치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화로 옮기고 싶은 사진이나 생각하는 이미지를 말해주면 아틀리에에서 준비를 해준다. 김보현 조사역은 휴일마다 방문하는 카페의



김보현
자산운용감독국
조사역

임정아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정승미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



사랑스러운 강아지 '콩이'를,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대만 가오슝의 바다를, 정승미 팀장은 인테리어용으로 손색없을 화사한 꽃을 선택했다. 흰 캔버스에 사진을 대고 스케치를 그린다. 강사는 “모두 처음이시죠? 그러면 사진을 대고 그리는 게 나아요. 채색에 공을 들이는 게 훨씬 예쁘니까요”라고 이야기했고, 각자 그림을 보며 살리면 좋을 듯한 부분을 체크했다. 콩이 사진은 콩이를 집중해서, 바닷가는 넓은 바다와 오토바이 두 대를, 꽃은 심플하게 그린 뒤 화사한 색을 쓰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그려도 괜찮나요?” 김보현 조사역은 스케치를 고치며 강사에게 물었다. 복잡복잡한 털이 중요한 그림이라 윤곽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스케치 중간중간 디테일이 부족했던 곡선 부위에 강사의 손이 몇 차례 더해지자, 금세 형태가 살아나 콩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가 됐다. 정승미 팀장은 제일 진지한 얼굴로 꽃 스케치에 몰두했다. 스케치부터 아주 꼼꼼한 성미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바다, 오토바이, 돌 등 다양한 소재를 선택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림을 그리느라 말은 많이 나눌 수 없었지만, 같이 물감과 기름과 씨름하며 전우애가 생긴 듯했다.



다채로운 채색으로 생기를 더하다

본격적인 채색에 앞서, 강사는 각자의 그림에 맞는 채색 팁을 전했다. 김보현 조사역에게는 “콩이의 털이 검다고 해서 검은색만 쓰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고, 임정아 선임조사역에게는 “하늘색이 너무 진하면 그림 전체가 떠 보일 수 있으니 채도를 낮춰보세요”라고 설명했다. 정승미 팀장에게는 밝고 어두운 부분의 명도를 조절하며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셋은 스케치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채색에 들어갔다. “콩이를 진짜 좋아해요. 저한테 콩이 사진으로 만든 그림톡을 주기도 했더니깐요” 작업 중간,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김보현 조사역에게 받았다는 그림톡을 보여주었다. 평일 점심에만 있는 강아지라 휴가를 내면 꼭 보러 가는 강아지라고. 김보현 조사역은 “그린 뒤 완성도가 괜찮으면 주인분께 드리려고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힘들게 채색하고 나자 “그냥 제가 가지게요!”라며 웃어 보였다. “색이 자주 섞여서 어렵네요

고등학생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참 어려워요.” 정승미 팀장은 작은 붓으로 꽃의 노랑과 푸른 부분에 명도와 부피감을 주며 칠했다. 스케치처럼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칠하며, 중간중간 강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대상을 다 칠했으면 이제 배경 차례다.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바다와 자전거가 보이는 사진이라 하나의 풍경처럼 칠했지만, 김보현 조사역과 정승미 팀장은 각각 그리는 대상과 어울리는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채색하기 시작했다. 임정아 선임조사역의 그림을 보던 강사가 “와, 소질 있으신데요?”라며 이야기했다. 정승미 팀장도 “정말 사진 같네요. 진짜 잘 그렸어요”라며 칭찬을 이어갔다. 임정아 선임조사역은 숙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셋은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잘 그렸다고, 고생 많았다고 칭찬을 주고받았다. 그림을 그리느라 말은 많이 나눌 수 없었지만, 같이 물감과 기름과 씨름하며 전우애가 생긴 듯했다.

“집에 걸어두기 딱 좋겠네요” 정승미 팀장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화는 3주동안 말려야 한다.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며 셋은 작품이 완전히 마를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처음 그려보는 유화라서 더욱 재미있고 새로웠던, 그림보다 더 오래 남을 하루였다.



낭만 넘치는 하루였어요!



김보현 조사역

유화를 처음 그려보는데, 생각보다 터치가 너무 어려워서 잘 그릴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인 콩이를 그리는 거라서 더욱요! 완성한 작품을 보니 뿌듯해요. 앞으로도 유화를 그려보고 싶어요.



임정아 선임조사역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그렸어요. 그리면서 힐링할 수 있었고, 또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뜻깊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승미 팀장

학교 졸업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방에 놓아둔 그림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두면 어떨지 생각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다음에는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7/21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과목 특강 학교 현장 방문**

지난 7월 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 장려를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동 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으로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과목 특강」을 진로교육과 연계해 시

행하고 있다. 금융과목의 필요성과 단원별 주요 핵심 등을 안내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금융권 진로와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김미영 처장은 금융과목 특강을 신청한 남강고등학교를 방문해 금융과목의 신설을 적극 안내했다. 학교 관계자 면담에서 금융과목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업용 강의안 개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금융과목 담당 교사 양성 지원을 위해 금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남강고등학교 1학년 9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과목이 사회진출 이후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실생활 중심의 과목임을 적극 안내했다. 한편 이번 특강이 「1사 1교 금융교육과 연계된 만큼, 결연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박현주 부행장도 함께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기도 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에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한눈에> 코너에서 8월 말까지 특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학교에 대해 1사 1교 결연 금융회사 등을 통해 선택과목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까지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융과 경제생활」 수업을 담당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7/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지난 7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

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이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 시장 신뢰의 시작이다.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으며,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합동대응단이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말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8/7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지난 8월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통해 미국 관세부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타결 등 국내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제 개편과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위축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국내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 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험자본: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일반 평균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자금

8/12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2일,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금 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금융감독원 서재원 부원장보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투사 인원 등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모험자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이에 벤처·혁신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모험자본 활성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할 계획이다.

뻘하지 않은 Quiz

2025년 9월 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호 문제

**Q1. 이모티콘을 보고 정답을
유추해보세요.**



힌트: 1962년에 창단된 발레단의 이름
(12-13 Inside 코너를 잘 읽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Q2. 아래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혀주세요.**

OOOOOO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
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호 정답


- Q1. 호들이
- Q2. 온라인 예금증개

이벤트 당첨자

- 육*희 010-****-3905
- 홍*영 010-****-7711
- 김*동 010-****-1899
- 정*재 010-****-4120
- 이*희 010-****-5157



 **이번호 이벤트 마감**
2025년 9월 22일까지

 **지난호 퀴즈 당첨자 선물 발송**
8월 25일까지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독자 의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하세요.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같이
최근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험회와 함께 국민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6개월(2025년 7~12월) 동안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합니다.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슷폼 영상 배포, 광화문·강남역 등 서울 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 및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